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** [**media@klpga.org**](mailto:media@klpga.org)

**2R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코스레코드 경신 고지우(김민별과 공동 경신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|
| 2 | 기 간 | 2025년 6월 27일(금) ~ 6월 29일(일) |
| 3 | 장 소 | 버치힐 [HILL(OUT) / BIRCH(IN) 코스] |
| 4 | 주 최 | ㈜일화, 모나 용평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42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박현경, 노승희, 이예원, 홍정민, 이동은, 이가영, 방신실, 김민선7, 정윤지  유현조, 김민주, 박보겸, 고지우, 이소영, 임희정, 최예림, 김시현, 정지효  서지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2R 10언더파 62타, 중간합계 18언더파 126타 1위 고지우(오후 6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12>

**※ 고지우 이번 대회 관련 기록**

**- 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코스레코드 경신(2라운드 10언더파 62타 / 김민별과 공동)**

\*종전 기록: 최혜진 9언더파 63타(2017년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최종라운드)

**- 대회 36홀 최소타 기록 경신(18언더파 126타)**

\*종전 기록: 이가영 13언더파 131타(맥콜 ·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)

**- KLPGA투어 역대 36홀 최소타 기록 경신(18언더파 126타)**

\*종전 기록: 조정민 17언더파 127타(2018년 제8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1-2R)

**소감**

사실 오늘 오버파 쳐도 된다는 마음으로 나왔다. 스스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편하게 하자는 마음이었는데, 초반부터 샷이 정말 좋아서 짧은 버디 퍼트가 남았고 버디를 잘 잡아내 좋은 경기 했다.

**10언더파 처음인가? 김민별과 함께 코스레코드도 경신했는데?**

처음이다. 라이프 베스트이자 코스레코드 경신해서 정말 좋다. 원래 8개가 최고였다.

**2년 전 이 대회 우승할 때와, 이번 대회 차이가 있나?**

2년 전에는 사실 우승을 얼떨떨하게 했다. 그 때는 마지막 날 잘 쳐서 했고, 지금은 선두에 있어서 느낌이 많이 다르다. 2년 동안 내 골프 자체도 단단해진 느낌이다.

**달라진 것?**

일단 기술적으로 실수가 적어졌고,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졌다.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잘하고 싶고 우승하고 싶어서 욕심내는 편이었는데 내려놓고 온 것 자체부터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. 사실 마지막 홀도 우드로 투 온을 노리고 싶었는데, 확실하게 버디 잡으려고 꾹 참았다.

**전반 6개 홀 연속 버디 할 때 신경 쓰였나?**

특별히 연속 버디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. 그리고 다른 선수들 성적도 보면 전반에 버디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해서 그냥 홀에만 집중했다.

**이번 대회 본인 포함 선수들 성적 좋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나?**

전장이 길지 않고, 그린이 잘 받아준다. 그리고 그린 스피드도 많이 빠르지 않아서 좋은 성적 나는 것 같다.

**우승 스코어 예상한다면?**

24언더파

**올 시즌 초반 톱텐은 많지만 우승 근처에서 아쉬웠는데 배운 게 있나?**

무너져도 톱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무너졌다고 생각 안하고, 잘 버텼다는 생각을 하는 날 보면서 배운 것 많고, 성장했다고 느낀다.